



표지사진 : 아프가니스탄 카불북부 톱다라지역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이들

**JTS 통권 41호 2003년 5 · 6월**

펴낸날 : 2003. 5. 1

펴낸이 : 유 수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김경희, 최정연,  
이미경, 이순희, 윤미옥, 유미영,  
황미숙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 인도 통게스와리 소식

- 4 행복한 수업
- 6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한 사람으로
- 8 아즈 카나 아차해?

### 지금 북한에서는

- 10 북한어린이와 어머니들의 영양상태

### 아프가니스탄 소식

- 12 우리는 아프간에서 봄을 일군다.
- 14 어린 새싹들!!

### 따뜻한 이웃

- 16 북한어린이와 함께하는 SKC주식회사

### 후원의 소리

- 18 조그만 정성
- 19 우리 함께 해요!!

### 활동보고 및 안내

- 20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아프가니스탄 소식  
북한지원 사업  
국내사업
- 22 신규회원 명단 및 물품지원
- 24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 28 라진 · 선봉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 30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



## 행복한 수업

쁘리양카 /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교장



저는 2000년 7월부터 수자타아카데미의 교장으로 일하고 있는 뿌리양카입니다.

첫해에는 아주 간단하게 학교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경험이 하나도 없는 저로서는 수자타아카데미의 교장으로서 남자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예체능 교육을 시켜서 신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면 우리아이들이 훨씬 더 개발되고 재미나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는 하였지만, 인도의 일반 학교에서는 예체능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 중에 예체능 시간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주 막막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학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주는 것, 유치원에 1주일에 3번 직접 음식을 배달하고 나누어주는 것에 한정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약간의 특별과목을 신설하여 한학기 정도 한글과 태권도, 음악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교육은 인도인 선생님이 계속 와서 건기에도 계속될 수 있었지만, 6개월을 기약한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가르치는 한글, 음악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1년 이상 장기 봉사자들에 의해 한글, 태권도, 음악, 미술, 영어회화, 만들기 수업이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저희들은 매우 행복합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하는 수업은 일반 교과 수업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다루고 있는 한국인 선생님들의 수업에 임하는 자세와 열정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등은 많이 배워야 할 점이고 저와 인도인 선생님들은 이 점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6개월 봉사기간을 마치고도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여 어린 이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우사(강은희)씨스터에게 더욱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체능 교육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른 인도의 일반 학교에 비하여 경험의 폭을 넓히고 항상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에 넘치는 행운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명상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여 맑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면 하는 욕심을 한가지 더 부러봅니다. 지금은 이것도 저에게는 마음으로도만 간절하고 막막한 일이지만, 곧 한국인들에 의해 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예체능 교육이 그랬던 것처럼...



##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한 사람으로

이성용/ 인도 수자타 기술학교 자원봉사자



이 라마께서 축하해주시는 가운데 건물  
의 완공식이 있었고, 3월 27일 개교  
식 및 제1기생의 입학식을 치렀  
습니다.

저희 수자타 기술학교는  
건축, 전기·기계, 농업, 의  
료, 가정 등의 분야를 3년 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축에는 목  
공, 철공, 미장, 페인트 등의 과목이,  
전기에는 전기와 기계가, 농업에는 축산  
과 농업기술 개발, 의료는 X-ray나 혈액체크, 간  
호, 그리고 가정에는 재봉과 요리 등에 대해 지  
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1년은 각 과목별로 기  
술을 조금씩 다 익혀보고, 2학년에는 그 중 두 과  
목을 전공·부전공으로 선정하여 집중교육을 받  
은 후, 3학년에는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매일 오전 4시간은 실기과목을 배  
우고 이러한 실기 교육을 이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영어, 수학, 제도, 디자인, 컴퓨터, 한국어  
등의 교양 과목을 오후에 4시간씩 배우고 있습  
니다. 3년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JTS에서 이들  
에게 직업을 소개해줄 것입니다. 그러려면 단순  
한 지식과 기술을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고, 인성  
교육을 더 중시하여 정직하여 사람들에게 신뢰  
를 받고, 근면하고, 용감하여 무엇이든 잘 할  
수 있고, 친절하여서 누구에게나 사랑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수자타 기술학교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나마스떼! 한국에서 정치학도로서 대학을 다  
니다 JTS-India에서 여섯 달의 일정으로 자원봉  
사를 하기 위해 와 있는 이성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등게스와리의 새로운 희망, 수자타 테  
크니컬 스쿨에 대해 소개를 할까 합니다. JTS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이제 수자타 아카데미는  
튼튼한 뿌리를 잡았고 지바카 병원도 이곳 주민  
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착착 진행시켜 가면서 교  
육의 문제나 의료의 문제에는 작으나마 소중한  
진전을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곳 청년들 중의  
상당수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수준에 해당하  
는 고급 교육을 받고도 경제적·신분적 장벽 때  
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청년 실업'의 문제가 또한 심각하답니다. 저희  
Stujata Technical School은 바로 이러한 청년들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1월 달라

상근 교직원은 교장선생님인 Shanti(이화승) 시스터와 인도인 staff로 교감선생님이자 학생생활 담당을 맡고 있는 Kapildeo씨,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파트 타임 교사로 기술 과목은 지금까지 저희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성실하고 실력 갖춘 현지 전문 기술자들이 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철공에 Balam씨, 목공에 Ganesh씨, 미장에 Suraj씨, 페인트 Udai씨, 농업에 Kapildeo씨, 의료에 Kameswar씨, 재봉에 Krishina씨가 노고를 하고 계시구요, 오후의 교양 과목 수업에는 영어수업에 인도 staff인 Sweety 시스터가, 제도를 Rajmanti(최정란)시스터, 디자인을 Anita(김자인)시스터, 컴퓨터를 Damendar(김태정)브라더, 그리고 영어회화, 수학, 한국어 수업을 제가 한꺼번에 맡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도 생소한 개념의 영어이름 들을 새로 공부해야 하고, 그것을 힌디로만 공부한 학생들에게 다시 알려 주어야 하고, 그것을 기초로 다시 새로운 문턱을 넘어야 하고 ... 가끔은 차라리 내가 힌디를 빨리 배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이지요. 그래도 수업시간을 넘겨가며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겠다고 학생들 손을 잡아끄는 우리 브라더, 시스터들, 정말 대단합니다.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초기라서 이것 저것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만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힌디어, 영어, 한국어가 오가다 보면 그 일들도 즐거운 오락이 되어버리는 느낌입니다. 그 동안 학교의 운영 기초를 다지기 위해 학교의 연간 계획, 과목별 운영 계획 등을 준비하고, 학생 지도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개인별 신상 기록 및 상담 카드 제작, 그리고 성적 산출 방식 등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한 행정

처리가 대충 끝난 지금은 학생들이 공부할 교과서를 제작하는 일과 학생 생활 전반을 가이드 하게 될 교칙을 제정하는 일, 그리고 수업 진행에 필수적인 자재와 도구를 구비하는 시스템 마련에 비중을 두어 일하고 있습니다.

입학해 있는 1기생은 총 7명인데요 각각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군요. 착하고 짹짹해서 반장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Pintu, 공부는 잘하지만 늘 장난기가 동하는 Vinay, 가장으로서 공부 외에도 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하는 Balendra, 쉬는 시간에도 늘 공부하지만 알겠냐고 물으면 대개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는 Karu, 줄곧 결석하다 이제 막 마음을 잡은 Syambali,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차마 질문하지 못해 불쑥 손을 들고는 씩 웃고 마는 Jayram, 내성적인 성격이라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Rupan ...

오전에는 작업복으로 열심히 대패질, 철근 절삭 작업을 하다가 점심 식사 후에는 녹색 교복으로 깔끔하게 갈아입고 교실에서 강의를 듣는 이미 장가를 다 가서 어른이 된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학교가 또 하나의 희망이다, 아니 또 하나의 희망으로 만들어 내야만 한다는 생각을 되새기게 됩니다. 지금은 개교 초기이기 때문에 3년 과정을 지내면서 학생들, 학교의 교과과정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 수 없고, 저 자신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아직은 많이 서투르지만 이 아이들이 찾아가는 길에 때론 뒤를 잘 바쳐주고 때로는 이끌어주고 성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살아서 이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길러주는 좋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 아즈카나 아차해?

박경미(싸드나) / 인도 지바카병원 자원봉사자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에는 양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해 주고 계십니다. 아이 한 명은 배가 몹시 아프다고 와서, 선생님을 기다리다 얼마나 아픈지 누워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오는 이들을 보면 '지바카가 없었다면.. 오늘 의사가 안온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 종기같이 깊이 뚫은 상처를 깨고 치료하는데도 단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뿐 소리한번 지르지 않고 그 큰 눈에 힘을 주어 핏줄이 서고 어금니가 부러져라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의 지금까지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жат은 기침으로 가슴에 통증이 있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한 결핵환자들이 약 2년 전부터 저희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점차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64명의 환자에게 결핵 약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명이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약을 주고 우유와 영양식을 주는 일을 저와 또 다른 자원봉사자 두 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양식 맛은 어땠지 궁금해서 '아즈카나 아차해?(오늘 음식 맛있어요?) 이렇게 물을 땐 친구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곤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제 마음도 흐뭇해지지요. 환자가 직접 오지 않고 식구를 대신 보내는 경우는 혹시 많이 아픈 건지, 다른 문제가 생겼는지 물어보고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의 50% 이상이 약을 먹은 지 1년이 넘는 환자입니다. 지금까지의 결핵검사 방식이 아직은 엑스레이 판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완치 판정을 내릴 수가 없어 아직도 약을 복

용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오랜 기간 꾸준히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좀더 확실한 검사법인 객담도말 검사법을 이 곳에 오면서 사전에 익혔지만 아직도 실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사도구들을 거의 완벽하게 준비하였고 다음달 정도면 저희 손으로 한 객담검사가 완치환자 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마 이 검사를 하게되면 지금의 환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완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핵퇴치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에서 보면 지금이 시작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의 독자적인 결핵퇴치 프로그램을 갖고 등계스와리부터 보드가야까지 모든 결핵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낼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64명 중 53명의 환자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생활환경과 영양정도, 건강문제 등을 알아보는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는 17명 정도가 하루 한 두끼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부식을 살 돈이 없어 밥과 소금만 먹거나 밥과 약간의 사부지(감자 등 야채)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양상태로 결핵 약을 이겨냈다는 것이 오히려 의아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이 결과를 통해 환자들에게 쌀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먹을 부식거리가 없고 입을 옷이 없으며 할 일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부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막아야될 구멍이 크다고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그 구멍을 막는다고 서둘렀다가 금방 다시 허물어 질 수도 있으니 견고하고 튼튼히 차근차근 막아야 하겠지요. 언젠가는 막아질 것이라는 확신만 갖고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금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여 부족함이 없고 이들과 비교하면 상상이 안 되는 풍족한 생활이었지만 가끔은 이들 앞에서 작아지는 저를 봅니다. 어렵게 살아 단지 몸이 허약하고 혈벗었을 뿐, 땀뻑하고 강인한 정신이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그냥 그대로 불평도 불만도 없이 마치 물 흐르듯이 살고 있는 이들. 물질은 풍족하지만 정신은 빈곤한 우리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 어느 삶이 더 행복한 삶인지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핵 약을 안 가지러 올 때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야 할 때 물리서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내 부모, 형제라면 난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 쌀을 씻으면서 그리고 짜과티를 만들면서도 되됩니다. '내 부모, 형제가 먹을 음식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들이 간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약을 안 가지러 오는 환자 집에 새벽 6시에 약을 주러 자전거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누구는 이 시간에 돈주고 헬스 자전거도 타는데 나는 이 시간에 인도에서 약도 전달하고 운동도 하고 참 좋구나, 근데 그 환자가 내가 운동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새벽부터 웃어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헬스비를 버는 일이 생기겠지요. 자전거를 타고 새벽공기를 가르는 신선함은 아마 타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 신선함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 북한 어린이와 어머니들의 영양상태

(2002년 12월 ~ 2003년 1월)

출처 : 유엔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조정 사무실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the Humanitarian Affairs)  
번역 : 정토희 국제연대부 자원 활동가 정용식



## ■ 아동 영양 상태 보고서 많은 진전 확인 - UN 기관들 성과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

평양/제네바 2003년 2월 20일 -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아동 영양실조 발생률은 지난 4년간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결과를 발표한 유엔 기관들은 이 성과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원조가 계속해서 줄어들다면 다시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조사(북한에서 있었던 어떤 조사보다도 가장 컸던)는 아동뿐 아니라 어머니의 영양

을 포함했으며 지난 10월에 북한 당국의 통계청과 아동 영양 기구 그리고 국제아동기금과 국제식량기구와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유엔 기구들은 비록 새로운 측정치들이 엄밀히 말해서 이전 1998년에 치러진 조사와 비교할 수 없지만 명백하게 긍정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 아동 저체중(나이 대비 몸무게)의 비율이 1998년의 61%에서 2002년 21%로 떨어졌습니다.

○ 급성영양실조(키 대비 몸무게)는 16%에서 9%로 떨어졌습니다.

○ 만성영양실조(나이 대비 키)는 62%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부분적으로 최근 몇 년간 있었던 국제 사회에 의해 제공된 구체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돌렸습니다. 1998년 기록되었던 예외적으로 높았던 영양실조 수준은 또한 1990년도 중반에 북한을 휩쓸

있던 기근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도주의사업 유엔 사무차장(Under Secretary-General) 켄조 오시무라는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원은 명백히 긍정적 효과를 지니며 계획되었던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또한 북한 여기 저기의 서로 다른 취약성에 대한 최초의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남포시의 아동들에서 만성영양실조를 예로 든다면 함경남도의 48%인데 비하여 25%입니다. 수도인 평양의 급성영양실조 비율은 함경남도가 12%인 반면에 4%미만입니다. 이번 조사는 식량 가용성과 아동기 설사병의 발생률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발견하였습니다.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계획은 북동 지역이 북한의 여느 지역보다 더욱 취약하다는 그러한 경향을 현지 조사를 통한 관찰로 확인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엔아동기금 & 세계식량기구 합동 기자회견 전문 중에서〉*

## ■ 건강과 영양-영양 부족 상태의 어머니들

더 중요한 발견은 약 1/3의 어머니들이 영양 부족 상태이며 빈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기금의 전무이사인 케틀 벨라미는 "이것은 명백히 아동 영양 실조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 중에서도 이번 조사는 여전히 다시금 어머니의 건강과 영양 상태가 아이의 건강과 영양상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비록 아동 영양실조가 상당할 정도로 떨어졌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기관은 여전히 '적정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르면 급성영양실조 발생률은 여전히 '높고' 만성영양실조 발생률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식량, 의료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외부 기부에 있어서의 최근 침체는 성과들을 상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엔이 더 많은 약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껏 이룩한 진전의 많은 부분이 되돌려지면서 영양실조 비율이 다시금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세계식량기구 전무이사인 제임스 티 모리스는 경고했습니다.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국제아동기금과 세계식량기구 직원들은 분석을 위해 자료 수집 팀에 참여했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국제 아동 건강 센터로부터 온 전문가들과 방콕에 본거지를 둔 태국 건강 재단이 조사 계획, 훈련, 통계적 정확성에 대한 확인에 있어 지원해 주었습니다. 두 독립적인 단체는 결과가 신뢰할 만하며 정확한 조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의 12개 시/도 중에 10개 지역에 있는 가정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6,000명의 7세 미만의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다루었습니다. 각 가정의 가장 어린아이의 체중과 키가 기록되었으며 어머니의 영양 상태가 측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건들 - 식량 가용성, 아동 급식 및 보살핌, 그리고 건강 상태와 같은 -에 대하여 질문되었습니다.



# 우리는 아프간에서 봄을 일군다.

김재령 / 아프가니스탄 간사

아프가니스탄 차하리카르주에 있는 톱다라는 전형적인 산악 농촌 마을이다. 이곳 톱다라도 한국 처럼 봄이다. 벚꽃은 이미 봄소식을 전하고 내년 봄을 기약하며 속으로 숨었고, 들판에는 튜울립과 같이 생긴 굴리롤락이라는 하양고, 새빨간 원색의 꽃이 들판을 수놓고, 사랑나무가 막 봄의 대열에 합류해서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다.

톱다라는 마을 어귀에 할아버지 뽕나무들이 즐비하게 서서 마을을 보호한다. 이 뽕나무는 아프가니스탄이 소련과 치른 10년 간의 전쟁, 그리고 최근까지 치른 각종 내전 등 톱다라가 엄혹한 겨울을 보낼 때, 이곳 주민들을 살린 나무이다. 전쟁을 치를 때, 이곳 주민들은 뽕나무 열매인 오디를 먹으면서 생명을 잇고 봄을 기다렸다고 한다. 구명난 건물과 한쪽 다리가 없는 아이들은 이곳 톱다라가 아직 전쟁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톱다라의 어린이들은 제대로 된 학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책, 공책, 연필, 가방 등이



없는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보다 더 많고, 신발이 없거나, 신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발을 신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은 포탄으로 부서진 흔적이 곳곳에 남

아 있고, 어두컴컴한 동굴 같은 방에서 반쪽 난 칠판 하나를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다. 나는 이 곳 톱다라의 아이들을 보면서 6.25 전쟁이 갓 끝난 한국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보는 것 같았다. 전쟁통에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5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닌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나게 한다.

제대로 된 학교가 없는 이 곳 톱다라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학교와 소형 댐을 만드는 것이 아프간에서 내가 할 일이다. 이곳 주민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는데 지금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평탄작업을 한다. 평지가 없는 해발 2,000미터 정도의 산골마을인데다 돌이 많아서 공사가 쉽지만은 않은데 게으름 피지 않고 참 열심히 한다. 공사 중에, 학교가 완성되면 주인이 될 아이들

이 내려와서 신기하면서도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공사현장을 바라보기도 한다. 이제 곧 소형 댐 만드는 공사도 시작된다. 전쟁의 아픈 상처가 아직 남아 있지만 톱다라에는 내일의 희망을 일구는 삽질 소리와 곡괭이 소리가 한창이다.

식량사정이 그리 넉넉지 않은 톱다라 마을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사서 나눠주는 것도 유정길님과 내가 하는 중요한 일이다. 더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좋은 밀가루를 나눠주기 위해서 카불에 있는 밀도매상을 살살이 다닌다. 어느 때는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밀가루를 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유정길님은 지친 모습도 없이 상인들과 열심히 가격 흥정을 한다. 한국에서 후원하신 분들이 소중하게 보내준 사랑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다부짐이 나를 돌아보게 한다.

한 번은 밀가루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려고 하는데 밀을 실은 트럭이 산 중턱에서 엔진사고가 나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밀 한 포대가 쌀 한 가마니보다 더 무거운데 이렇게 무거운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집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걱정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당나귀를 데리고 오더니 고마움을 듬뿍 담은 꾸밈없는 미소와 함께 당나귀 등에 밀을 싣고 가는 것이다. 사진을 찍는 나도 흥겨워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듣기

좋은 소리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마른 눈에 물대는 소리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 글 읽는 소리라고 하였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세 가지 소리를 톱다라에서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지원해서 산모들이 아이들에게 젖을 주고 있으며, 학교가 완공되면 아이들의 우렁차고 희망찬 글 읽는 소리가 톱다라에 울릴 것이며 소형댐 공사가 끝나면 밀밭에 물대는 소리가 더운 여름을 식힐 것이다. 아프간의 톱다라는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한 봄을 한창 일구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새싹이 돌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거름이 됩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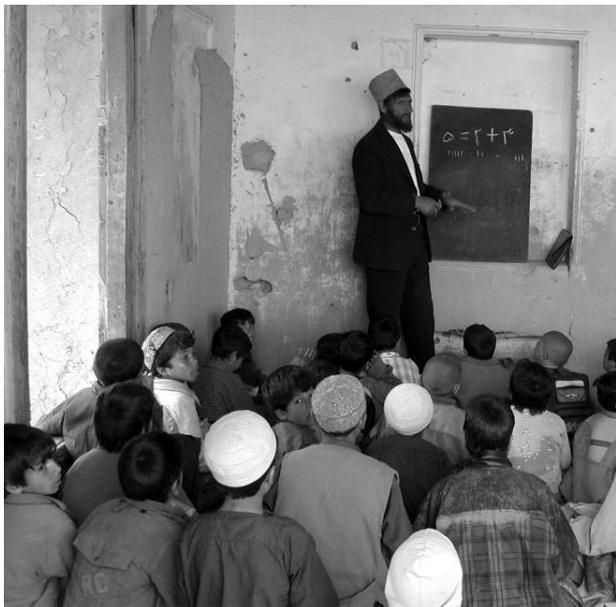
## 여린 새싹들!!

한김지영 / 아프가니스탄 자원봉사자, 동국대 교육학과 2학년

Shalom! 중동에서 다리어, 이란어, 아랍어, 유대어 등 많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인사말은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Shalom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말입니다. 모두들 평화롭게 살고 계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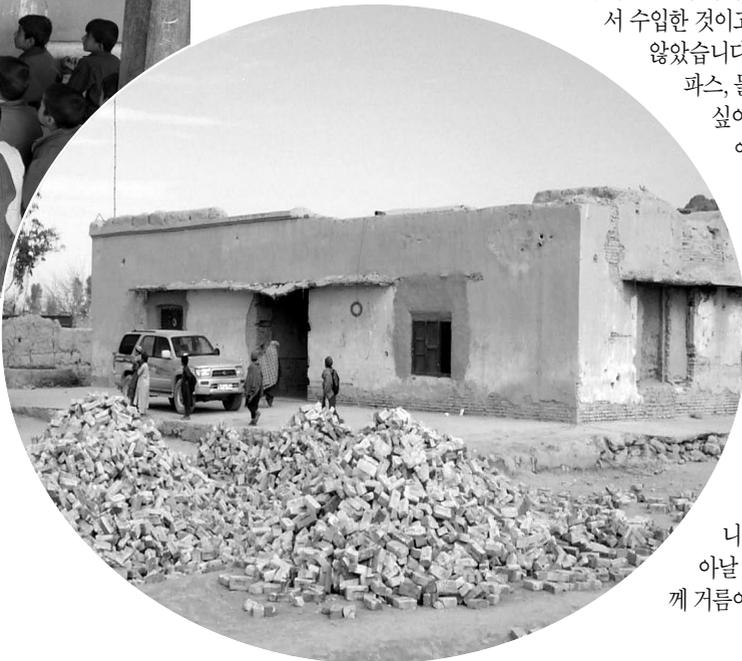
폐허가 된 카불에서, 테러가 빈번하고 이라크 전 이후 비상상태이지만 약 10년 동안 인도에서 일하신 노하우와 인자함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 선주 법사님, 감기, 설사 등으로 육체적 고생이 심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책임감 있게 일하시는 범운 법사님,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시지만 항상 영어 책, 다리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순수한 재령 범우, 시장 조사를 할 때마다 아프간 남성들에게 주목받고 가끔 성회룡을 당해 고생하시지만 금방 풀고 가격을 잘 깎는 시우 범우, 파키스탄 난민에서 벗어나 지금은 부인과 5명의 자식을 벌여 먹이기 위해 운전과 통역을 해주시는 하심지(아프간에서 존칭으로 이름 끝에 '지'를 붙입니다.), 어머니같이 살림을 맡아 주시는 모빈지와 한 식구가 되어서 새로운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참, 러시아 전쟁 당시, 하심지는 무자헤딘이었고 모빈지는 공산주의자여서 서로 총격전을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서로 장난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답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학생에게 지원할 교복, 신발, 문구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다라라는 카불 근교의 가난한 시골 마을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여학생은 50명이었고 남학생은 160명이었습니다. 성비 불균형이 심하지요! 대부분 헐거진 옷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돌산이고 경사가 높아서 잘 미끄러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가방이 없기에 비닐 봉지에 책을 넣고 다니더군요. 남학생은 모스크에서 공부하고 여학생은 한 집의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나, 방도 꼭 차



서 UNICEF에서 준 텐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학교를 짓고 있어서, 3개월만 지나면 아이들이 흠바닥이 아니라 책상이나 카펫에서 공부할 것을 생각하니 한숨 놓아졌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우 범우와 만데이 시장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교복 천을 사러 다녔습니다. 남대문같이 사람이 북적거리는 만데이 시장은 대부분 남자이고 소수의 여자들도 대부분 푸른 텐트(부르카)를 쓰고 다니기에, 우리가 신기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옛날부터 중동은 아라비아와 아시아의 교역지로 상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물건값을 흥정하는 게 얼마나 교묘하던지... 결국 밀고 당기는 흥정 끝에 검은 폴리에스테르 천을 사서, 과부들에게 교복을 만들 수 있도록 천을 주었습니다. 전문 테일러가 아닌 과부들에게 교복을 만들게 하는 이유는 그녀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직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석2조의 효과이지요...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시절의 환경들이 관습화 되서 인지 여성들이 교육을 받거나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학생들에게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는 이유 또한 그녀들의 취학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교복 1벌에 약 5000원입니다.) 신발과 문구류도 같이 지원하려고 시장조사를 해 보았으나, 신발 같은 경우 질이 좀 괜찮은 것은 다 비싸기(약 4500원, 가장 싼 고무신은 800원 정도 합니다.)에 더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문구류 또한 다 파키스탄, 이란, 인도에서 수입한 것이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스케치북, 크레파스, 물감 등을 지원하고 싶어도 아프가니스탄에는 없기에 어떻게 할 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모금한 돈으로 우리 식구와 이렇게 일을 한 지도 벌써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새싹이 돌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거름이 됩시다. ...\*

## 북한어린이와 함께하는 SKC주식회사

양상한 나무 가지에서 연두빛 새순이 나오던 3월27일 (주)SKC(사장 김수필)에서 임직원들이 모은 기금으로 JTS의 라선지역 남산유치원(300명), 상현유치원(320명) 어린이 영양식 후원금을 6개월 간 후원하기로 약정했다.

3월 달 기금 전달을 위해 한국제이티에스를 방문하여 대표 유수스님께 기금을 전달하였다. 함께 방문하신 인력 팀 이지삼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 SKC 화학부문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입니까?

SKC 화학부문은 1987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석유화학 중간 원료인 산화프로필렌(PO) 제조사로 정밀 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주 생산품인 산화프로필렌(PO)은 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건축자재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소재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는 서울에 있고 울산과 청원에 각각 1개의 공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김수필 사장님을 비롯하여 약 400여명의 임직원들이 즐겁고 의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이번 「북한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운동에 동참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예, 먼저 저희 회사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책임감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창사이래 지금까지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청소년 폭력예방 활동」「불우이웃돕기」등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마침 '북한 어린이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자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 ■ 후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번 성금 모금 운동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국내의 상황 등으로 임직원들의 동참이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상과는 달리 적극적인 동참과 회사 지원으로 233명의 임직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성금 모금 방법은 먼저 임직원들에게 참여 의사를 e-메일을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후원 기간과 방법 그리고 후원금을 팀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후원기간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자는 의견에 따라 3월부터 6개월간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개인이 희망하는 후원금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금은 회사 지원금을 포함하여 매월 3,117,000원씩 총 18,702,000원을 사단법인 한국 JIS에 기탁하기로 하였습니다.

### ■ 사단법인 한국 JIS에 바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단법인 한국 JIS는 북한 및 인도, 아프카니스탄 지역에서 소외된 이웃과 어린이들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활발한 도움을 주는 국제구호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 저희들의 성의를 모아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쓰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JIS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인류를 위한 나눔의 정신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 ■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저희 SKC 화학부문은 지속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와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 SKC 울산공장 야경



# 조그만 정성

신현길/ 회원, LG-Caltex 정유 주식회사



초등학교에서 배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게 가진 사람을 배려하고, 적게 가지고 있어도 깨끗하고 밝게 사는 그런 세상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만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어른이 되고, 웃음을 잃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가 이제 4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애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가족을 이룰까요? 갑작스럽게 변화하고, 점점 더 좁아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애가 컸을 때에는 지금은 멀리 느껴지는 사람들이 더 가깝게 우리 애와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이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릴 때 힘겹게 자란 것 같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공부하는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어릴 때 어렵게 컸던 저는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돈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려웠던 성장기를 겪으면서 내가 돈을 벌면 내

수입의 일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면서 생활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1% 기부운동 같은 것말이죠...

그래서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믿고 돈을 낼 수 있는 기관을 찾으려고 생각하였는데 쉽지 않더군요(그 때는 인터넷 같은 것도 없었을 때이었거든요)... 어렵게 찾은 것이 천주교 신부님이 운영하는, 미혼모 등을 돌보는 한 기관이었고 그 인연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언론 매체에서 듣고, 보고하면서 기회가 되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찾느라고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기관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JIS를 신문기사에서 접하고 이런 곳이면 내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준 JIS에 감사 드리며, 어렵게 맺어진 인연인 만큼 더 소중하게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눈을 뜨고, 세상을 한탄하던 이십대, 삼십대가 지나고,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니까 세상은 원래 내 생각과는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내가 나서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는 조그마한 정성이 세상을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가 컸을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JIS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 우리 함께 해요!!

김효미/ 자원봉사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휴학 중

내가 JIS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평소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올해 휴학을 하게 되면서 이번엔 정말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던 차에 친구를 통해 JIS를 알게 되었다. 기아·문맹·질병 퇴치가 모토인 JIS는 내가 그동안 찾고 있었던 봉사활동이었던 것이다.

아직 많은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내가 한 일은 예전에 나왔던 JIS 소식지를 문서화하는 작업이었다. 내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육체적인(?) 활동을 할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컴퓨터 하고 마주 앉아서 써먹고 있으니 처음에는 편했지만 갈수록 좀이 쑤시는 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고 쉬는 날 일 부러 시간을 내어 집에서 한시간 반이나 걸리는 JIS까지 가서 그렇게 지루한 일을 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그만 두려고 했지만 여길 소개시켜준 친구 얼굴도 있고 처음 봉사활동을 하러 왔을 때 너무나도 따뜻하게 반겨주셨던 대원심 선생님을 생각하니 이대로 그만둘 수 없었다.

처음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지? 무엇을 위해서이었을까?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늘 불안하고 뭔가 허전한 삶의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고 감사하고 싶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감사한 것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거나 힘겨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잘 사는구나 라는 만족감을 가진다. 나도 처음에 그런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다. 뭔가 큰길 기대하고 왔던 나였기에 이곳에서의 봉사활동이 지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천천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다른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무의식적으로 입력하던 소식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으며 정리를 했다. 그러니 정말 놀랍게도 고스란히 그들의 이름과 절망이 가슴에 와 닿았다. 그리고 또한 JIS의 활동이 그들에게 주는 희망도 느껴졌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 느껴졌다. 이제는 JIS 가는 날도 기다려지고 인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해보고 싶다.

봉사라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그 몫을 나눠 준다는 의미가 아닌 그냥 단지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같이 느끼는 것 말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밥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일상 중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자신의 삶도 좀 더 풍족해 질 것이다.

세상이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일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지 그것을 느낀 사람만이 알 것이다. 봉사활동 하고 싶는데 여유가 없다고 주저하고 있다면 과감히 뛰어들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아주 쉽게 문은 열릴 것이며 그 안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 인도 비하르주 동계스와리 수자타기술학교 입학식

인도 JIS에서는 지난 1월 12일 건물 완공식을 가졌던 Sujata Technical School이 3월 27일 법륜스님을 비롯하여 약 4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가졌다. 수자타 기술 학교는 2층 건물로 5개의 교실과 컴퓨터실, 도서관, 재봉실등을 갖추고 있다. 첫 입학생으로 7명이 선발되었고, 이들은 건축과, 전기기계과, 의료과, 농업과, 가정과 등 5개 전공분야에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의 교육을 받게 된다.



## 북한 지원 사업

-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에 어린이를 위한 물품 지원



3월 25일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 어린이지원으로 밀가루 100톤을 보냈다. 이 밀가루는 본 춘궁기에 있는 삼지연군의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식량이 될 것이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북한에 비료, 농업용비닐 보내기

지난 4월12일 부산항에서는 라선 JIS어린이 영양식 공장용 분유 14톤과 농업용 비료 384톤, 농업

용 비닐 24톤을 보냈다. 이 비료로 라선시 농장 300정보와 함경북도 경성군 농장100정보에 대한 지원이다. 이 지원으로 옥수수들이 무럭무럭 자라길 바란다.

## 아프가니스탄 소식

- 아프가니스탄에 2차 물품 지원



3월 10일 인천항에서 40피트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지원품이 카라치항으로 떠났다. 재활용의류가 하이탑에서 1대 반 분량, PAT(평안섬유공업식회사)에서 47,872장을 지원해 주었다. 마산정도법당에서 신발류 2,400여 켤레를 포함 기타 여러 곳에서 지원해 주신 생활용품들이 카불 근교 난민 및 주민들에게 배분될 것이다. 물품운반을 위하여 차용백님을 비롯한 대구정도법당분들과 마산정도법당분들의 수고와 서울 박창진님이 차량 및 운전을 지원해 주셨다. 감사드립니다.

## 국내 사업

- 법륜스님(JIS 이사장)과 박지나(해외사업본부장)님 필리핀 민다나워 지역 답사

4월 7일에서 9일까지 필리핀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민다나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답사차 법륜스님과 박지나 이사님이 방문했다. 지난 해 8월 이 지역 주교님의 요청에 의해 민다나워 무슬림지역에서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답사이다. 이번 답사 결과 올 하반기부터 원주민지역과 무슬림지역, 카톨릭 주민들이 사는 3지역을 선정하여 학교 건축, 교과서 지원, 교복, 문구 등의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 (주)SKC 북한어린이 돕기 성금 동참

(주) SKC(사장 김수필)에서 회사와 임직원들이 모은 기금으로 JTS의 라선지역 남산유치원(300



명), 상현유치원(320명) 어린이 영양식 후원금을 6개월간 후원하기로 약정했다. 매월 620명 어린이 영양식 지원액은 3백1십1만 7천원(6개월 : 18,702,000원)이다.

4월달 기금 전달을 위해 지난 3월 27일 SKC의 정기봉사부 외 2인이 한국제이티에스를 방문하여 유수스님(JTS 대표)께 기금을 전달하였다.

(주) SKC에서는 지난 2000년에도 북한어린이 돕기로 동참했던 곳이다.

● 동화작가 김중미님 북한 및 세계분쟁지역 어린이지원으로 500만원 기탁

지난 3월24일(월) '팽이부리말 아이들'로 잘 알려진 동화작가 김중미님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사)한국제이티에스 북한과 세계분쟁지역 어린이 의료 및 식량지원으로 500만원을 지정 기탁하셨다. JTS에서는 이 기금을 이라크 어린이들의 긴급 의약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인도 수자타아카데미에 장기 자원봉사자 4명을 파견



정토회관에서 교육을 마치고 4명의 자원봉사자가 3월31일(월) 타이항공으로 오전 10시 20분 출국했다. 이번에는 40대 여성분도 2분이나 참가를 하신다. 양성숙님은 학교 양호 교사였으나, 더 늦기 전에 인도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자원봉사 하시고자 학교를 그만두시고 기아, 질병, 문맹퇴치 사업에 함께 하고자 하였다. 김미효님은 주부이지만, 아들이 군대에 간 2년 동안을 남편과 주위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자원봉사 하고자 마음을 내셨다. 이재성(남, 38세, 무대장치가), 강지윤(여, 30세, 심리상담가)씨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인도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장기 자원봉사를 하려고 마음을 내셨다. 이 4분은 수자타 아카데미에 도착해서 1주일간의 적응훈련을 마치고 이재성씨는 건축, 양성숙, 강지윤님은 학교 교육, 김미효님은 사무국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인도 사진엽서 (4종) 나눔



인도 비하르주 등게스와리 마을 어린이를 소재로 한 인도 사진엽서가 나왔다. 한 세트에 1,000원이며

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본부 사무실이나 각 지역 범당에 연락을 바란다.

● 봄 학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교육

3월 15일(토) 오전10-12시까지 세미나 1에서 한양대 6명, 동국대 2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소개, 홍보비디오 시청, 소감나누기 등의 교육을 받고 현재 홍보부, 자원개발부, 총무부 등 각 부서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 귀산스님 인도 JTS로 후원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안에 있는 범당 전정각사에 탕화를 그려주신 귀산스님 불화전이 4월11일-17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 (종로구 시간동)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불화기금 중 250만원을 인도 돕기 성금으로 주셨다.



## 신규 회원(개인, 단체) 명단

2003년 2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 북한 어린이 결연

오혁근211-11655-11	임211-11688-11	김경희111-02974-14	조정애111-03010-14
이성진211-11657-11	문상인211-11689-11	김정호111-02975-14	박선영111-03011-14
윤영희211-11656-11	이준훈211-11690-11	김춘삼111-02977-14	정경숙111-03012-14
지평심211-11658-11	구영건211-11691-11	배상우111-02978-14	윤영미111-03013-14
이상연211-11659-11	김숙환211-11692-11	곽용기111-02979-14	박영화111-03014-14
김지은211-11660-11	김진남211-11693-11	한희수111-02980-14	박영화111-03015-14
박은주211-00582-11	박재욱211-11694-11	신인숙111-02981-14	진영준111-03015-14
천금화211-11662-11	송영욱211-11695-11	이민은111-02982-14	김수철111-03017-14
박준석211-11663-11	최귀련211-11696-11	상진스님111-02983-14	이지은111-03018-14
최숙211-11664-11	양석진211-11697-11	정창래111-02984-14	장현정111-03019-14
박중욱211-11665-11	최지은211-11698-11	김미선111-02985-14	김윤미111-03020-14
김영길211-11666-11	심태숙211-11699-11	김은주111-02986-14	김정인111-03021-14
이형은211-11667-11	이선희211-11700-11	이귀예111-02987-14	김영주111-03022-14
조청환211-11668-11	김호미211-11701-11	김월남111-02990-14	이병익111-03023-14
최영선211-11668-11	양제형211-11702-11	박병욱111-02991-14	황미숙111-03024-14
조성실211-11672-11	정규영211-11703-11	안성희111-11680-11	동건스님111-03025-14
김순담211-11673-11	이계성211-02487-14	강기순111-02992-14	승일스님111-03026-14
하애린211-11674-11	장영기211-11704-11	김성겸111-02993-14	중우스님111-03027-14
서선영211-11675-11	김해경211-11705-11	김관호111-02994-14	경담스님111-03028-14
남양통상211-11676-11	이금히211-11706-11	남은희111-02995-14	지의스님111-03029-14
이철환211-11677-11	김선임211-11707-11	강인순111-02996-14	정수스님111-03030-14
박성년211-11678-11	노희경211-11709-11	이수정111-02997-14	박옥정111-03031-14
이현미211-11679-11	차영종211-11711-11	성은정111-02998-14	양성숙111-03032-14
신해식211-11681-11	백점단211-11712-11	김옥희111-02999-14	김나연111-03033-14
김옥지211-11682-11	이정영211-11713-11	조영재111-03000-14	조문주111-03034-14
성은정211-11683-11	최병조211-11714-11	정순진111-03001-14	함승희111-03035-14
김은영211-11684-11		윤석련111-03002-14	정영숙111-03036-14
고미애211-11684-11	<b>인도 어린이 결연</b>	문민아111-03003-14	박기범111-03037-14
석봉준211-11686-11	<b>법희스님</b> 111-02970-14	정영희111-03005-14	황정현111-03039-14
이인숙211-11687-11	이은정111-02971-14	고준석111-03006-14	최애석111-03042-14
이병희(전 국한의과대학모)	이홍진111-02972-14	고영희111-03007-14	최유진,준현111-03044-14
	정재경111-02973-14	김정순111-03008-14	박진희111-03045-14
		심연옥111-03009-14	김영수111-03046-14

김광숙111-03047-14  
오동진111-03048-14

김중욱311-00276-13  
김중우311-00277-13

한정희511-00098-15  
신종우,신종익511-00099-15

정근영511-00110-15  
김문희511-00111-15

### 결핵퇴치회원

이현선311-00268-13  
최우진311-00269-13  
신상범311-00270-14  
이재순311-00272-13  
지동훈311-00273-13  
지수민311-00274-13  
홍윤숙311-00275-13

### 아프가니스탄회원

송덕용511-00091-15  
박정영511-00092-15  
정태기511-00093-15  
윤경덕511-00094-15  
최인자511-00095-15  
김대준511-00096-15  
김영애511-00097-15

서정우511-00100-15  
강가남511-00101-15  
홍성윤511-00102-15  
박한선511-00103-15  
홍영순511-00104-15  
정상만511-00105-15  
남수정511-00106-15  
유정상511-00107-15  
이명숙511-00108-15  
장경숙511-00109-15

태정호511-00112-15  
홍경진511-00113-15  
김현식511-00114-15  
지금련211-00151-15

### 단체결연

처음처럼211-11624-11  
정범구팬클럽212-11721-11  
SKC주212-11722-11

### 특별후원금

전국한의과대학 학생모임 2,000,000 이옥주 50,000 호국금강사 228,100 환희사 362,840  
최침운 10,000,000 성상욱 1,150,000 천안지방법원 84,000 신수정 714,000 성불암방생신  
도 420,000 조병순 300,000 서지현 50,000 최광수 60,000 장일선 450,000 임미진 30,000 김지선 500,000 조협,김경희  
150,000 이영희 150,000 신금예 20,000 김상률 200,000 김갑열영가 50,000 김난희 150,000 박계선 500,000 김상배  
150,000 차경숙 150,000 김익환 150,000 김용보,김용희 100,000 최희범 105,000 박근숙 1,000,000 남점자 100,000 한  
초자 80,000 신영미 150,000 정옥관,백정순영가 500,000 김중희,이충녀,김형기영가 300,000 조미라 273,000 이연서  
100,000 윤영희 30,000 이문숙 105,000 조명숙 100,000 김형수 150,000 대한 61,470 김태선 300,000 배정황 50,000  
SKC주식회사 3,11,7000 재일한국학생동맹 232,860 신방학중학교자원활동부 10,000 김우중,대중,선희 120,000 김규동  
72,000 강은규 65,000 황선욱 50,000 이기수 50,000 안병걸 1,200,000 안지혜 2,000,000 황병희영가 300,000 인용우  
62,500 인용석 62,500 최대식 246,000 김충진 246,000 안병걸,안지혜 2,000,000 홍진국 100,000 감로성 60,000 중봉  
60,000 김우중 60,000 오혁근 110,000 한청련 2,137,060 정토청소년 2,823,904 강다영 50,000 오수영신부님 1,000,000  
허종도,이경애 1,000,000 익명 3,000,000 익명 150,000 박명기 100,000 김등자영가 500,000 신일본종교청년회연맹  
101,139 송덕용 304,050 권오명 40,000 김진호 1,000,000 광용술, 정경주 1,000,000 김홍호 1,000,000 불교연대  
1,352,671 생태기행두레 500,000 철원청원사어린이이법회 348,800 김정숙 500,000 김민규 100,000 김순호 1,200,000 김  
승진,영애 2,500,000 거여경한의원 50,000 경남대청대성사 55,000 함림사 258,000 한울타리회 500,000 불교중앙출판사  
200,000 재가연대 10,000,000 자체정사50,000 지보사 100,000 기차길열작은학교 278,350

### 물 품 후 일

2003년 2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들어온 물품내역입니다.

1. 금천선원 수건 13, 비누 75, 치약 24 포함 생필품 1박스
2. 미산정도법당 실례화 1,200컬레, 여성신발 1,200컬레
3. (주)평안섬유공업(PAT) 재활용의류 47,872장
4. 하이탑 재활용의류 40피트 컨테이너 1대 남 분량
5. 광명섬유 목도리 3,500장 7,000,000원 상당
6. 남북어깨동무 결핵관련의약품 알벤다졸 100T 17 외 2종류
7. 배명자 옷96개, 팬이 30개
8. 무주상 탈모자 196장
9. 진관사 티셔츠 32장 등 1박스
10. 우연어패럴 어린이의류 1,000장 2,500,000원 상당
11. 황광명 목도리 50장 150,000원 상당
12. 호국금강사 김응법사님-니콘카메라와 렌즈.



#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3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통일돼지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 광주

원각사청년회177,580 이민하12,560 황은단30,220

## ■ 대구

거리모금(대구법당)145,780 거리모금(대구법당)67,670 거리모금(임은숙)633,080 거리모금(임은숙)469,400  
 거리모금(임은숙)343,690 거리모금(임은숙)399,220 거리모금(임은숙)423,040 공덕혜55,390 광진구3,300 김  
 나윤17,040 김나영25,650 김미래10,070 김보미,김두현26,400 김상률35,920 김숙희27,620 김양모29,810 김의  
 선7,720 김지애22,530 김정오26,100 김정오외-대구정토회986,090 김지함26,030 김현자150,000 노순택28,300  
 대구정토회모금1,848,800 대덕식당(칠곡) 32,870 덕신장여관19,700 덕신장여관10,300 류경희32,130 류경희  
 33,830 묘덕왕63,930 묘을성36,570 무주상18,790 무주상23,270 무주상39,500 무주상22,670 박옥자30 박정순  
 20,000 법성월7,260 브르봉 뽕5,760 성환희7,670 손미형,다민22,450 손영상33,340 송영화40,000 송영화45,730  
 수미광114,950 신균수21,150 신윤숙15,890 안영애23,620 안정화26,340 안창호20,550 양지은13,810 연화신  
 71,500 이미경36,150 이준호37,500 자비화21,720 장안사123,940 전병욱98,260 전병찬70,000 전춘범2,100 전현  
 수4,910 정길진25,020 정동욱11,940 조순옥34,000 조점자18,520 조진우7,460 지영자10,370 진여심19,520 최용  
 근65,130 칠보우리웃15,560 한순희12,890 황영자27,290

## ■ 대전

강태철 5,300 거리모금 122,500 고영숙 26,030 김순용 16,540 김관용 13,710 김관용 29,550 김금희 1,950 김  
 남식 17,780 김덕숙 3,500 김도현 15,690 김상래 35,930 김서영 29,210 김서영 18,630 김성숙 9,170 김솔미  
 15,360 김수연 17,270 김수진 3,450 김윤희 19,350 김은미 63,770 김정숙 17,220 김종복 9,590 김진태 16,930  
 김혜진 5,280 남대전고1-4 39,360 무명 15,540 무명 12,290 무명 8,330 무명 29,510 무명 24,470 무명 24,680  
 무명 21,660 무명 17,330 무명 5,290 무명 7,550 무명 14,910 무명 15,470 무명 1,140 무명 2,750 무명 3,950  
 무명 1,280 무명 3,450 무명 2,370 무명 1,630 무명 2,830 무명 10,230 무명 2,940 무명 1,680 무명 6,010 무  
 명 2,020 무명 29,350 무명 7,950 무명 17,120 무명 5,440 무명 2,720 무명 1,470 무명 2,060 무명 4,060 무명  
 1,070 무명 2,000 무명 19,150 무명 1,700 무명 14,350 무명 2,870 무명 2,400 무명 6,560 무명 2,690 무명  
 5,410 무명 3,040 무명 3,920 무명 14,150 무명 2,750 무명 2,740 문성임 3,680 박상용 1,970 박세진 55,820  
 박소진 13,140 박소진 6,640 박연실 33,390 박지현 27,950 박혜원 75,910 박혜진 19,580 배은석 18,700 서순  
 임 17,600 석정수 1,850 설명규 1,850 성수원 14,520 송인돌 23,880 송해경 3,250 신광호 63,990 신광호  
 23,740 안보옥 4,130 오정순16,680 윤기순 9,400 윤덕희 13,120 이건영 5,960 이규희 25,410 이동수 26,010  
 이미경 15,900 이윤영 8,610 이재겸 4,560 이정례 4,870 이정선 22,810 전재화 31,750 정경주 32,329 제갈명  
 자 17,950 조명숙 12,280 중앙불교사 33,000 최정미 20,950 허옥순 34,650 혜성기은 11,330 활귀숙 22,010

## ■ 마산

거리모금359,800 거리모금737,770 금강어린이집교사회100,000 김귀동10,900 김동환,동재37,400 김숙자  
 28,750 김정희(결핵후원)150,000 김찬민23,990 김현민39,720 남순정14,100 농협중앙회 26,670 동국산업  
 13,310 동국제약22,000 무주상18,070 무주상34,310 무주상23,460 무주상17,890 무주상22,650 무주상26,960 무

주상29,870 무주상2,990 무주상3,000 무주상15,360 무주상19,140 무주상24,520 무주상(4)139,860 문암초등학교15,070 성현철46,410 수진월46,850 신세권36,410 양수용13,830 양진월16,240 원협33번(윤)12,850 원협33번가19,160 유효열28,830 윤슬기16,080 윤익수5,960 이광숙54,060 이병수13,350 이순연18,970 이영식51,740 이윤직33,880 이현익7,000 임병주11,730 장친희12,760 전준영11,480 정덕연25,100 정영숙16,010 주차시24,360 진선화12,650 최미지27,800 최유진, 최준현(인도어린이후원)50,000 최유진, 최준현(북한어린이후원)50,000 최재두72,000 최정문21,700 최태련33,730 해운초등학교2-1번30,110 허종도, 허소정(결핵후원)150,000 홍수진, 수연23,600 황선옥, 순천, 순현(북한유치원결연후원)160,000 황소연100,000

## ■ 부산

3학년 2번16,980 4-1 번9,540 강기령75,000 강원자44,000 강정숙76,970 거리모금140,000 고란숙31,950 공경태9,760 광분규10,870 구길용49970 김기영19350 김고미2,800 김관형12060 김광현6760 김귀순38,200 김남순49,630 김대환3260 김미경17,820 김미령21,220 김미선28,850 김미숙40,000 김민수16,510 김민수15,880 김민수18,400 김민정36,130 김병훈15,880 김보경27,540 김보미6,900 김봉주16,820 김상조, 김석조18,000 김상지3,850 김석원, 이승우9,750 김성희24,750 김수련12,700 김시은8,070 김여옥27,350 김여진1360 김영희18,540 김은솔6,470 김은혜5,400 김인기1740 김인혜8,400 김종갑34950 김주자32,550 김지성10290 김지은10,820 김지은3,410 김진욱2,130 김철수112,330 김초록630 김하연6,150 김혜영3400 김희숙24,750 나영2,930 남혜민2,450 도관41,180 도법문주51,610 도성용110,440 도성용76,910 명곡지18,080 무명4,060 무명2,400 무명14,060 무명7,990 무명58,710 무명4,600 무명16,230 무명10,070 무명3,640 무명3,010 무명11,270 무명23,450 무명4,800 무명23,600 무명24,710 무명12,840 무명23,090 무명23,080 무명28,540 무명7,080 무명10,810 무명30,820 무명30,820 무명4,000 무주상5640 무주상13,280 무주상35,490 무주상10,640 무주상22,030 무주상900 무주상46,810 무주상3,990 무주상33,810 무주상18,450 무주상11,760 무주상4,280 무주상4,220 무주상10,550 무주상1,700 무주상7,560 무주상4,980 무주상3,340 무주상3,730 무주상9,400 무주상3,760 무주상3,940 무주상9,460 무주상6,530 무주상38,900 무주상25,090 문상호24,030 문상호2,050 문정호10,130 문흥주6,210 미스영6,860 박경모 10,530 박계선 50,050 박귀련 27,480 박기조 37,900 박다연 9,720 박문식7,880 박분남26,700 박성희23,900 박소정15,410 박수미8,420 박수지5,020 박순득17,950 박유진3,630 박점수18,190 박점수890 박정덕20,110 박정은13,770 박지용44,600 박지훈12,660 박차진22,050 반여중17,020 방활자32,370 배근영620 백만준2,610 백점단22,980 법문주119,520 법문주88,010 법문주36,280 법문주84,610 법문주56,900 법문주118,600 법연스님(운문사)22,410 부산정토회거리모금140,000 산꼭대기13,830 서귀옥3,100 서봉현2,650 서영훈4,320 서은주34,660 서은주26,960 서혜영2,400 석옥중35,610 석재우13,350 성수민3,700 성영애33,560 손다혜3,150 손이림20,880 손현호4,550 신기훈12,600 신상훈22,380 신순말18,010 신혜지2,600 심미지36,370 심지희82,390 안혜진7,270 안혜진5,280 양상훈3,990 양선미9,340 양재령5,090 여경자74,700 오성훈17,000 오영자22,810 오유정6,360 오은선15,320 오은선60,840 유선경20,000 유승희12,010 윤말순(고)25,030 윤영미21,600 윤유림1,790 윤지영4,560 이경미16,890 이경신19,690 이경희17,840 이경희24,920 이경희15,880 이남선41,150 이동현2,050 이말련14,650 이명희, 김수미8,610 이민혜5,990 이상수20,320 이상현1,760 이석순35,000 이상수9,870 이수경14,370 이수나5,960 이승재12,830 이상준2,950 이예지, 이기희1,700 이은경7,290 이은경1,940 이인경17,240 이종철41,410 이종철19,520 이준호22,440 이지성3,800 이지인3,930 이필은19,080 임수정5,080 임재성8,150 임재홍11,750 임주민11,540 장미지23,410 장일선55,080 장일선160,000 장진영32,640 전선영9,290 전소영20,300 전인배23,070 전정숙14,170 전현우1,240 정귀순8,320 정수걸15,550 정연지13,310 정영록5,920 정옥20,210 정재영22,550 조상미11,510 조영순38,860 조운상20,570 조은진3,340 조준영9,940 조지영4,980 조현록2,550 존아지21,660 종현11,250 진숙희47,180 진인배16,300 진형석18,330 차순자22,800 차연지28,900 최고아4,000 최광수38,110 최광수38,540 최정숙17,000 최정숙49,160 최주희3,350 최희규29,240 추범우18,620 하성용6,790 하성철4,580 하영숙33,650 학생23,250 학생15,850 학생29,070 학생22,780 학생6,070 학생10,800 학생8,500 한광훈6,050 한승희6,590 한이현5,080 한지원8,980 한지원24,990 한채은7,650 한희수9,570 허세홍9,190 허애경31,150 허영조34,450 허은실12,330 홍상범9,220 홍지연23,940 황말희22,390 황말희31,560 황주성29,250

## ■ 서울

강두석6,460 강민구6,600 강민이430 강산24,460 강성모8,120 강시은16,000 강아미32,870 강애니32,290 강재

신11,380 강재신18,380 강정수27,370 강지연1,320 강지영18,410강지영43,800 강채린6,830 강태찬5,490 거리  
 모금(서울정토회)96,540 거리모금(서울법당)81,410 거리모금(서울정토회)228,150 거리모금(서울법  
 당)96,560 고경애4,000 고나연24,420 고명주26,410 고철호26,130 고행자25,450 궤원현9,850 구경삼23,530 권  
 종원2,040 권태준2,300 권혜숙43,070 길영선6,330 길영훈7,170 길경민6,560 길경민4,070 김경순24,140 김관  
 기12,750 김국자11,990 김나연26,520 김나현20,970 김민규66,670 김민주4,360 김서연7,870 김석주6,350 김선  
 14,660 김성훈1,890 김소연5,750 김소영20,000 김소형21,620 김승정22,920 김영근18,170 김영범38,700 김영훈  
 2,760 김예빈2,040 김용희5,020 김우진960 김우진1,130 김우진19,420 김우진23,430 김원준4,320 김유기34,370  
 김윤서6,070 김인정28,990 김재령29,650 김재일4,420 김재현17,190 김정경4,840 김정현3,580 김종학19,620  
 김종학28,220 김종학4,230 김지수22,750 김지수5,040 김지하13,710 김지현12,560 김지현19,050 김지현30,050  
 김진우3,900 김태호7,060 김현경5,240 김현민2,720 김현진3,770 김현진10,000 김화준5,920 김희수22,830 김  
 희원3,490 남규범5,930 노영지18,650 노영희22,000 노정태21,950 노진아15,560 대학생부21,470 마흔이29,340  
 맹행일22,070 모덕27,890 무명19,580 무명6,170 무명11,470 무명10,860 무명3,760 무명32,090 무명10,970 무명  
 15,660 무명15,700 무명15,130 무명55,760 무명12,390 무명71,000 무명1,000무명4,200 무명2,950 무명28,240 무  
 명20,840 무명24,900 무명30,980 무명2,000 무명1,700무명39,380 무명38,360 무명27,430 무명12,020 무명13,980  
 무명1,390 무명5,000 무명3,630 무명2,170 무명8,140 무명26,690 무명3,700 무명1,780 무명1,830 무명6,620 무  
 명3,190 무명3,200 민기22,040 박문후2,930 박민우1,660 박선희5,100 박성정4,900 박성현8,370 박세린1,490  
 박세호4,700 박수빈12,350 박아름6,970 박여영22,600 박옥정75,000 박옥진10,530 박은빈5,080 박은우22,400  
 박의진4,790 박준철9,240 박지애6,110 박지해6,480 박지현9,240 박진규5,840 박철규7,700 박해연7,730 박현  
 3,230 방원웅11,060배봉주1,000 배재예11,370 배진우6,720 배현욱8,740 박은월15,410 백혜은34,330 변성민  
 1,990 변식용1,020 변우식4,340 변지환3,620 보연전자88,200 서미정25,420 서민정8,020 서수경18,590 석지희  
 19,640 성남법당24,700 소태정18,240 손재민15,830 송은경20,730 송정호11,000 송주빈3,210 송채현5,360 송철  
 호10,000 수련원32,950 신우진4,230 신은주31,200 신재연7,590 신정재15,640 심규원10,750 심유현18,790 심윤  
 희26,680 심유택27,620 안부금23,400 양가영2,720 양경렬14,200 양명숙21,900 양명숙19,950 양윤덕32,950 여  
 미란4,580 오세봉18,330 오수빈15,990 오승준13,770 오윤록17,480 오지원4,900 오현수20,390 오현수73,750 왕  
 흥군4,440 원정희18,980 유영규17,660 우수진옥경21,470 유재민19,550 유주희7,470 윤나리3,380 윤동노5,100  
 윤상은20,070 윤상은50,940 윤상준2,760 윤옥순18,790 윤표34,120 이경원24,350 이경훈2,910 이남경8,710 이  
 동윤28,340 이민리26,480 이미혜16,300 이민주2,310 이민주7,360 이석36,570 이상원39,810 이상현4,010 이상  
 환23,330 이상일10,890 이수남39,220 이수철32,750 이영식1,000 이영진15,530 이영희3,380 이윤11,270 이윤주  
 4,080 이인경6,530 이정근14,030 이종길3,600 이종찬20,850 이종희16,520 이준원8,830 이지솔19,880 이지영  
 6,490 이지은3,990 이지은1,870 이지현9,800 이진석11,400 이진우7,860 이채은11,890 이태연13,850 이하늘  
 6,790 이현주6,320 이혜원4,290 이혜인3,220 이혜진14,710 이화숙19,030 이화숙18,800 임관희21,780 임금순  
 20,720 임상길13,130 임유진11,850 임호순20,090 이재광17,070 장남석23,310 장동6,120 장승원4,590 장원석  
 840 장하나6,210 전연서3,740 전혜미6,340 전호열6,090 정공렬10,820 정석훈3,640 정승연7,370 정영래11,840  
 정예준8,070 정유리380 정정수16,870 정지윤4,420 정진경2,640 정진희19,160 정진희17,830 정철우22,660 정  
 태민2,090 정현재16,740 정혜수7,680 조기성6,960 조상규29,260 조승연4,380 조연희7,760 조용현18,160 조정  
 숙17,490 조정휘56,920 조진녕1,730 조진철19,630 조창운7,450 지상민14,610 지승민13,340 지은경28,100 지장  
 사16,210 지장사15,150 차호영10,550 차호영22,810 천성민4,160 최상원3,000 최서연9,740 최소영17,350 최예  
 슬19,030 최예지8,890 최원호4,840 최원희34,030 판치기2,080 허민지26,470 허복진3,720 한소리8,340 한일수  
 6,040 한재민13,010 함유나14,950 허서중81,330 허수인680 허연분6,300 허유진11,660 현일5,130 홍세영12,280  
 홍유식21,800 홍윤경23,680 홍채연22,170 홍현수7,920 황경미17,900 황민호24,480 황현진4,820 효영지22,100  
 후곡노인정10,680

## ■ 울산

강누리13,000 권재린2,580 김규호1,300 김규희10,290 김단비6,190 김도희1,240 김민수6,780 김석찬2,960 김  
 소영1,820 김수원28,910 김슬예1,590 김혁근호32,310 남동연6,090 무명9,050 무명45,160 무명15,370 무명  
 6,010 무명4,170 무명1,710 무명2,970 무명7,970 무명14,610 박선영25,490 박성연27,900 박신연22,660 박인경

1,720 박재희2,360 박주영1,690 배진욱45,200 배창현19,710 변정희,정문순54,670 서나윤18,950 서민관3,090 서현우4,660 서혜진2,540 손미정28,930 안영민13,180 우정호5,270 유병민3,170 윤언순17,940 이해경15,710 정승문19,500 정원산24,000 최유경4,250 추유미10,110 황현근13,780

## ■ 제천

대학서점19,910 맞지랑만두찜빵5,870 봉양농협연쇄점18,890 유유식거리모금274,080 유유식,인기숙가족(거리모금)173,760 이철수30,000

## ■ 지역별명

개성중학생들모금40,000 국민서초지점12,910 김미혜30,000 김승희30,000 김재천5,000 김재천 5,000 김정숙10,000 김정숙10,000 김조현10,000 김조현10,000 김혜련40,000 김혜련20,000 낮은지리50,000 박선미19,580 박이교순60,000 박이서로20,000 손혜주26,600 신관섭31.62 유료42,900 오윤정39,700 용산초등학교11,150 유영애17,400 이미경50,000 이순섭,이기갑36,000천미자-211유료232,100 조은정38,260 하나은행부사동지점18,270

## ■ 청주

거리모금123,010 거리모금27,320 광봉준34,070 광영술31,600 광영술35,160 금천동사무소14,320 기홍진22,460 김나영10,000 김동운24,620 김명렬20,000 김민석11,180 김상욱13,820 김주현4,380 김태웅24,760 김태풍25,430 민경률17,950 민안자22,910 민응기24,950 바우바우5,360 박영숙13,800 박옥순21,360 박정우10,690 박종희36,060 박준자29,290 박준자21,830 박현숙7,500 박현숙10,000 상당초등85,130 서동령10,000 석준25,430 성지은10,870 손경희23,730 수민당51,000 수민당63,000 수민당58,560 심화용12,340 안양섭18,080 에이스마트19,970 오영주48,530 오혁진26,420 오혁진50,260 유기숙35,270 유다인18,420 유동욱13,610 유순호24,530 유현욱17,190 이경숙21,000 이숙기13,140 이숙기12,250 이영자32,890 이영진9,540 이원근13,220 이은선24,460 이점순16,000 임진묵5,790 전민구7,050 전윤숙10,000 전윤숙10,000 전윤숙10,000 정경주27,270 정경주30,300 정남식22,000 정미영26,490 정상민31,720 정상민24,570 정성철18,820 정약평44,130 정춘자5,280 중앙식품12,020 청주법당18,990 최광수18,710 최규상16,650 최인욱34,480 흥문당서점36,250 홍일남21,940 홍정우30,630 황경주26,420 황연주15,840

## ★ 2003년 3월-2003년 4월 현재 자원활동가 ★

### ■ 한국

일 반 - 이순희,윤미옥, 유미영, 황미숙, 조남희, 배은정, 김희수, 송하경, 정순덕, 장성호, 남궁규, 최금자, 유영진, 노숙자, 김광혜, 정통규, 안석기

대학생 - 류제홍 (서울대), 진혜미(대진대), 정성윤(대구대), 이영환, 김희식, 정연주, 백하나, 정명리(한양대), 김효미(동국대) 김영우(성균대), 최지혜(동국대)

### ■ 인도

김동훈, 박경미, 김태정, 정태경, 장석우, 김동하, 김자민, 정기영, 이미정, 정수현, 최정란, 이성용, 양유석, 양성숙, 김미호, 강지윤, 이재성

### ■ 아프간

남시우, 한김지영

※ 여러분의 정성은 JTS의 희망입니다.



#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2003. 4. 20 현재

라진·섭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2003. 4. 20 현재



# 빨간 모금 통

류성자 / 부산 자원활동가, 모금 팀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는 빨간 모금 통을 들고 부산 역으로 갑니다.

부산 정토 법당 청년회 활동 부안에 모금 드림팀이 있습니다.

작년 일년은 모금 드림팀의 일원으로 함께 하다가 올해는 모금담당이 되었습니다.

잘 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부담감이 주저하게 했지만 우리의 결연금으로 한끼 점심을 먹는 굶주리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격려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우리 모금 팀은 모금 일정에 맞춰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개인에게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드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군요. "모금 드림팀에게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구요.

저도 처음 모금을 나갔을 때 어색하고 쑥스러운 마음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음엔 안 나가야지" "바빠서 안 된다고 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모금에 동참해주시기도 하지만 굳은 얼굴로 지나가거나 외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 또한 저랬는데 저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금에 나오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하시면서 항상 함께 해 주시는 분과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는 우리의 모금 드림팀이 있기에 더욱 더 힘이 납니다.

빨간 모금 통을 든 우리들을 만나러 부산 역으로 오세요.

---

\* 모금한 금액은 저희 단체에 꼬박꼬박 전해져 북한어린이 영양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